

사단법인 과학키움

(ISP: Initiative for Science Promotion)

사단법인 **과학키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한국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략 제안을 위한 싱크탱크로 기초과학 발전과 노벨과학상 후보발굴을 위한 과학의 교육정책 및 교육실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탄생한 비영리단체 법인이다.

설립 목적

1. 국가의 기초과학 육성 및 과학기술인 교육
2. 우수과학자, 노벨상수상후보 발굴 및 지원
3. 과학포럼, 노벨상관련 강연, 학술대회 개최
4.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전시회
5. 과학기술의 일상생활에 적용과 활용 등

비전(Vision)

‘기초과학 세움, 과학기술 진흥, 노벨상후보 발굴
인류 문명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준비해 갑니다.

기초과학 세움

기초과학의 바탕을 세워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

과학기술 진흥

과학과 기술의 융합 및 조합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모색

노벨상후보 발굴

인류평화를 위한 첨단과학기술로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을 선도할 우수과학자 발굴

인류문명 미래가치

인류의 과학문명과 사회적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발굴 및 지원육성

미션(Mission)

과학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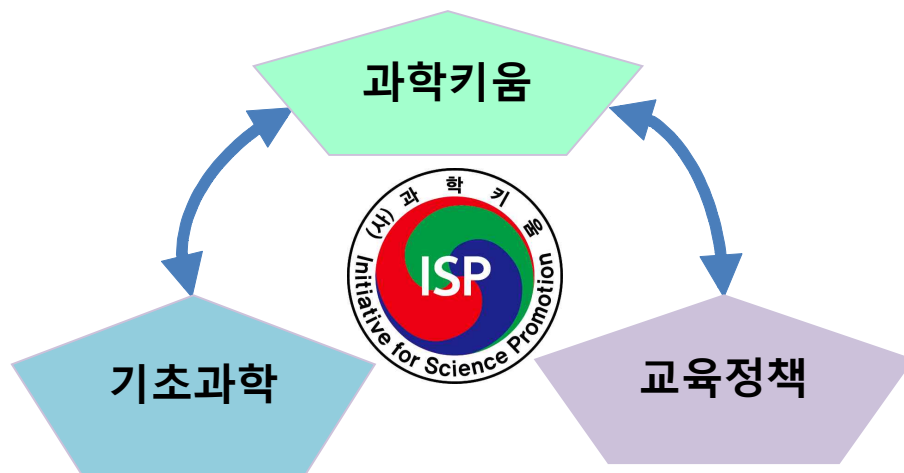
장차 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영재 발굴 및 양성

교육정책 해결방안

노벨과학상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기초과학 교육과
모범 교육정책 방안 제시

과학교육 플랫폼

과학지식과 인성교육을 함께 하는 교육의 장 마련



과학한국 · 교육강국 · 경제대국

태극: 만물을 생성하는 우주의 근원, 즉 우주와 자연, 인간에 대한
이치와 철학이 담겨있는 동서양 사상의 핵심원리를 함축표현

**(사)과학기움은 기초과학의 바탕을 세우고
노벨상후보 발굴을 위해 설립한 싱크 탱크다!!**

이사장 인사말

(사)과학기움 조완규 이사장 인사말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10월이면, 여러 친구가 한평생 과학 분야 교육과 연구에 시간을 보내 온 나에게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는 언제쯤 나올 것인가’라고 묻는다. 30~40년 전에는 아직 멀었다고 대답하였다. 일제 통치에서 해방된 1945년 일본의 제국대학 이학사 학위를 취득한 우리나라 과학자는 단지 4~5명이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학부 5개 학과에 교수의 수는 단 14명이었고, 교육 및 연구시설은 극히 취약하였다. 세계 최빈국이요 1950년에 터진 6.25 전쟁으로 고등교육 시설은 모두 파괴되었고 교수와 학생 다수를 잃었다. 그런 상황에서 노벨상을 바라는 것은 한낱 꿈이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로 여겨 왔다. 19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배고픈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근원이라며 미국이 월남 파병대가로 보내 온 600만 달러를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KIST 설립에 투입하였다. 물론 서독 파견 광부, 간호사의 피땀 흘린 돈, 가발 팔아 번 돈 그리고 세계은행 차관을 얻어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였고, 각종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였다. 초빙된 다수의 재미교포 과학기술자가 연구요원으로 활동하였고, 대학교수로 과학기술 교육에 진력하는 등 과학기술은 일시에 국제수준급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는 이제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 가능성,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다수 국가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벨상 수상자 혹은 그 급의 과학자를 수시로 초청하여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연구요원 및 대학교수 개별 연구과제의 자문과 평가를 구하는 일이다.

이 같은 자문 및 평가를 거듭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나라 정부 및 국민의 과학 풍토육성 의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노벨상 수상자 발굴 지원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그간 수행한 BK21와 IBS 사업은 우리의 과학기술력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 중 우수 과학자를 발굴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국제적 학자로 양성한다. 또한 이들 과학자들을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게 하고, 노벨상 수상자 혹은 시상식에 참석한 세계 과학자와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 친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계에 부상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 혹은 과학육성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는 박사학위 과정 때 혹은 초기에 수행한 연구를 포함, 그 뒤 30~40년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물론 연구가 창의적이고 그 결과가 인류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십여 년 전부터 S-오일이 우수 이학박사 학위 취득자에 시상하고 있다. 이들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내용은 가히 세계적 수준급이다. 이들과 같은 젊은이가 대학교 교수 요원 혹은 연구기관 연구요원으로 발탁되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절실하다.

넷째, 연구과정은 고가인 최신 정밀기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 환경에 따른 창의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연구재원이 양보다 질, 창의성 여부가 연구 성과를 창출한다. 우리는 창의성이 우월한 민족이다. 충분히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그에 흡족한 연구 환경조성이 긴요하다.

다섯째, 노벨상 수상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및 국민적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자연계의 현상에 대하여 항상 왜(?), 어째서(?)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한 토론 위주의 교육방식이 절실하다.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에 열중하였다고 한다. 초·중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이 점을 깊이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노벨과학상 수상후보자 발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과학키움’의 발족을 준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아 등록하였다. 그동안 ‘과학키움’ 사업의 준비 중 번거로운 일과 정관규정 제정 등, 제반사에 헌신하고 있는 성용길 회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사단법인 ‘과학키움’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사단법인 과학키움이 대대로 노벨상을 배출하는데 산실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관심과 후원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사장 조 완 규



서울대학교 18대 총장

교육부 장관 역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정회원

국제백신연구소(ivi) 고문

노벨사이언스 명예고문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고문

회장/ 인사말

(사)과학기움 회장 성용길 인사말

우리시대에 존경하는 과학계의 석학을 모시고 사단법인 과학기움의 출발을 보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사회 전 분야의 변화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사단법인 과학기움**의 회장을 맡게 됨에 무한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써 앞서가는 (사)과학기움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GNP, GDP가 세계에서 7위권에 진입했고, 과학기술계의 산업구조가 지구상 상위권에 해당하는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에서 명성이 높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사)과학기움**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가능성 있는 후보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고, 전력을 다하여 자랑스러운 한민족 국가가 되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한 치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고,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상 또한 엄청난 난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 국민의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학영재들을 발굴하여 과학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걸 맞는 교육정책과 연구개발에 일대 혁신을 가할 수 있도

록 많은 바 일과 선정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과학교육의 제반 문제들을 구성원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지혜와 역량을 모으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첨단과학시대를 맞아 구시대의 협소한 전공의 틀을 깨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목적하는 바를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준엄한 시대적 요청이자 명령이므로 우리는 모든 분야의 석학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과학계의 혁신적인 교육생태계’를 새로이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과 창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교육 시스템과 그 모형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연구개발이 꽃필 수 있는 자율적 교육환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의 기반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성원들 모두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위한 과학혁신을 이행해나갈 용기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단시일에 끝날 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앞으로 차근차근 개척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우리에게 “도전하라, 그러면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과학기움**을 일으켜 빛나는 도약과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나갑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임무 과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 하여 함께 건전한 기본재정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재정이 뒤 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사)과학기움**이 사회적 공동체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알차고 힘차

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과학교육은 창의, 융합, 역량중심, 그리고 학생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걸 맞는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제도개선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구성원 간 모두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투명한 과학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일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 논의과정이 항상 투명하고 바르게 공개되어 대다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추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껏 응전하고 도전할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뒷받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초과학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학기술이 우리들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 이룩 되고, 위대한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지는 법인단체로 크게 성장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장 성 용 길



미국 The University of Utah, Ph.D. PostDr. 연구교수
부산대 Dr. Sci. 교수, 동국대 학장, 명예교수
한국생체재료학회 부회장 회장, 명예회장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 회장, 자문위원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원 원장

(사)과학키움 이사회 회장단 구성

고문·자문위원

권숙일, 박호군, 김우식, 채영복, 오 명, 김영환, 제롬킴,
김도연, 이장무, 이우일, 이태식, 서상기, 유장희, 이충희,
이현구, 조장희, 박성현, 이상목, 조울래, 이병권, 이덕환,
김성수, 송석구, 이명철s, 이영일, 국중하, 김진두, 김영오,
민태진, 김수동

이사장

조완규(서울대학교 18 대 총장, 교육부 장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초대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정회원)

<이사회>

이사:

박호군, 성용길, 박상철, 박영우, 김하석, 박준희, 김현숙, 김병동,
백우현, 박성율, 백우현, 고광국, 류재근, 이덕환, 전승준, 김영인,
이용삼, 나흥식, 최수영, 최기상, 최무영, 노태원, 김수봉, 김선기,
최진호, 정옥상, 김인산, 차국헌, 최종길, 나흥식, 최수영, 이명철 c,
이은직, 민경찬, 유재준, 이준호, 한은미, 이건수, 양정성, 최재천,
강국희, 금동호, 김수동, 이민재, 최현일, 남창훈, 정인권, 김종일,
성노현, 백용기, 손동철, 정필훈, 김성진, 최영주, 황승기, 신희덕

감사 : 김경진, 조청원

회장

성용길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원 원장, 미국 유타대 연구
교수, 동국대 교수 학장, 명예교수,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류재근(기획관리), 박상철(정책), 박영우(대외협력),
김하석(미래교육), 박준희(홍보), 김현숙(편집·출판)

사무본부

사무총장: 박주철

총무이사: 김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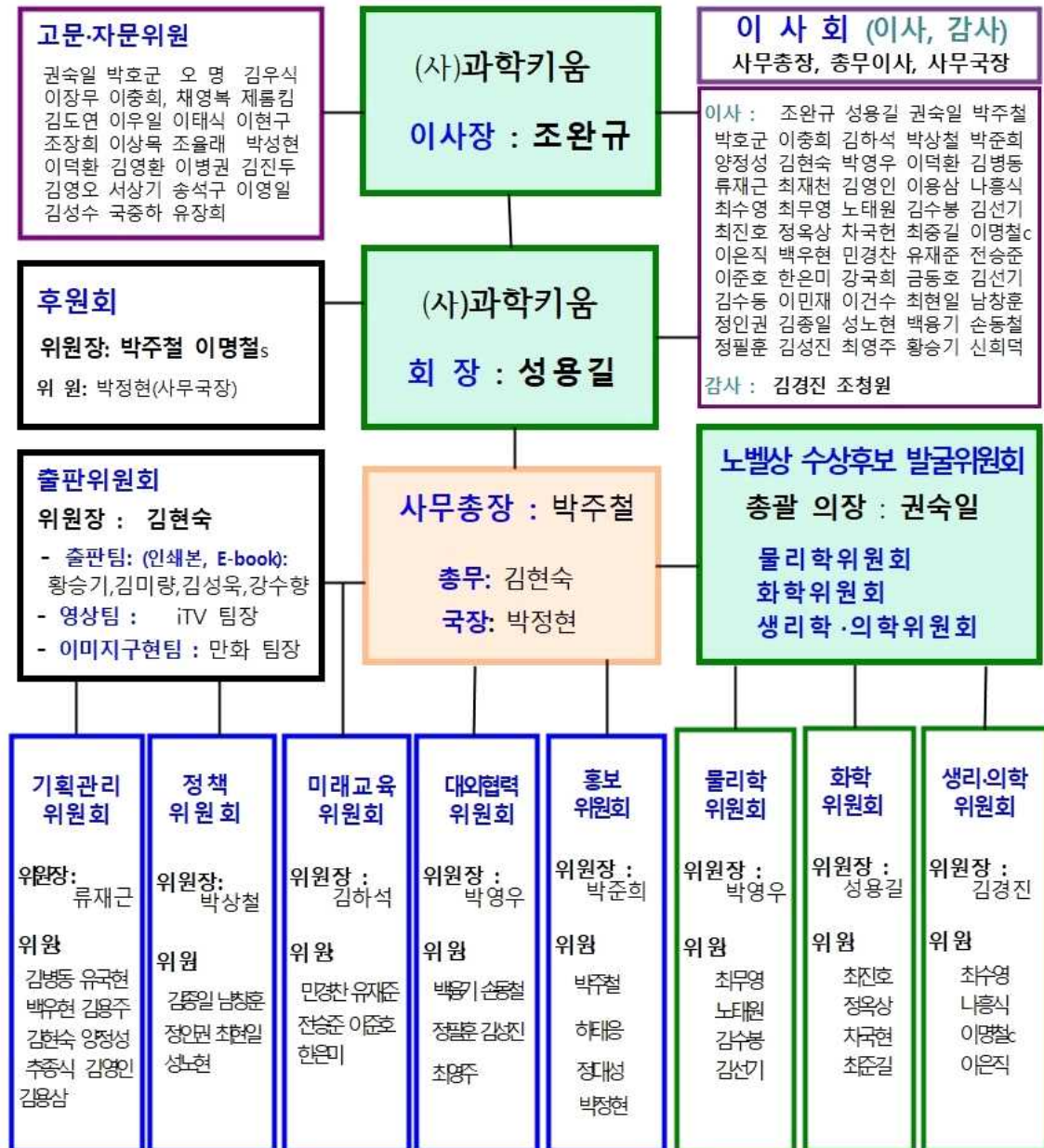
사무국장: 박정현

사업행사담당(직원)

(사)과학기움 구성 조직

(사)과학기움

사단법인 과학기움 구성 조직표



노벨상후보발굴위원회

총괄 의장

권숙일 박사(The University of Utah, Ph.D. 서울대 명예교수,
과학기술부 장관, 대한민국학술원정회원 회장)

물리학분야 (위원장)

박영우 박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 Univ. of Pennsylvania, Adjunct
Professor, Ph.D.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물리학분야 위원: 최무영, 노태원, 김수봉, 김선기

최무영 박사(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간사), 노태원 박사(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수봉 박사(성균관대학 물리학과 교수), 김선기 박사(서울대 물리천문
학부 교수)

화학분야 (위원장)

성용길 박사(동국대학교 학장, 명예교수, University of Utah,
Research Professor, Ph. D., Dr. Sci.,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역임)

화학분야 위원: 최진호, 정옥상, 차국현, 최종길

최진호 박사(서울대 교수 이대 석좌교수 역임, 단국대 석좌교수, 독일뮌헨대 Ph.D.)
정옥상 박사(대한화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화학과 교수, KAIST, Ph. D.)
차국현 박사(한국고분자학회 전 회장,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Stanford Univ.Ph. D.)
최종길 박사(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전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Brown Univ. Ph. D.)

생리·의학분야 (위원장)

김경진 박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 DGIST 석좌교수, Univ. of Illinois, Ph.D.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 한국분자세포생물학 회장역임

생리·의학분야 위원 : 나흥식, 최수영, 이명철, 이은직

나흥식 박사(고려의대 명예교수) M.D., Ph.D., 대한생리학회 회장(2013-15),
최수영 박사(한림대, 명예교수) Ph.D.,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부총장, 한국생화학회 회장
(2014), 이명철 박사(충남대 명예교수) Ph.D.,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이은직 박사(연세의대 교수) M.D., Ph.D.

<각 분야별 목적사업 수행>

1. 분야별 한국을 빛낼 과학자 발굴
2. 발굴된 과학자 지원 및 홍보
3. 외국석학 초청, 자문, 학계연계, 심포지움 개최
4. 노벨상관련 책자 기획발간, 출판
5. 발굴된 과학자를 노벨재단을 비롯한 세계학계에

알리는 홍보작업

❖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모색하고 그 업적이 노벨재단과 국내외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사진 : 노벨상 시상식장 장면 (노벨재단)

운영위원회 임원 및 구성 기구

기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장: 류재근

위원: 김병동, 백우현, 유국현, 송대경, 김용주, 김영인, 이용삼, 김현숙

정책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장: 박상철

위원: 남창훈, 정인권, 김종일, 최현일, 성노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장: 박영우

위원: 백용기, 손동철, 정필훈, 김성진, 최영주

백용기(연세대 생명과학과 교수, 간사), 손동철(경북대 물리학과 교수), 정필훈(서울대 치대 명예교수), 김성진(여, 이화여대 나노화학과 교수), 최영주(여,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장: 김하석

위원: 민경찬, 유재준, 전승준, 이준호, 한은미

민경찬교수(수학, 연세대특임교수), 유재준교수(물리학,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전승준교수(화학, 고려대 명예교수), 이준호교수(생물학, 서울대 자연대학장),
한은미교수(화학공학, 전남대학 교수협의회장).

홍보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장: 박준희

위원: 고광국, 박주철, 하태응, 정대성, 박정현, 김현숙

편집·출판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장: 김현숙

위원: 황승기, 김미량, 김성욱, 강수향

김현숙 (신성대학교 컴퓨터 IT 전산학과 교수)

황승기 (승산출판사 회장), 김성욱(한국기업혁신연구소 소장), 김미량(아라의상디자인
연구원 원장), 강수향(한국의상디자인연구원 원장).

지부 및 지부장

서울중앙지부, 충청·대전지부, 부산·울산·경남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제주지부

연구원 및 연구원장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원, 한국노벨과학문화원,
기초과학연구원, 고등과학연구원, 교육연구원

<소식란> 알림 <Announcement>

(사)과학기움 초대 이사장으로 **조완규**(서울대 18 대 총장, 전 교육부장관,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 대한민국한림원 초대원장)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추대하다.

(사)과학기움 초대회장으로 **박호군**(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추대하다. 인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다(2023.5.4.)

(사)과학기움 2 대회장으로 **성용길**(동국대학교 학장, 명예교수,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 원장)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추대되다.

(사)과학기움 본부를 필동(충무로역 3 번 출구)에 자리 잡도록 박재원(AN Group 회장)께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 길 32 삼성빌딩 건물 (2 층)과 시설을 제공하여 1 년여 본부로 사용하다.

2021 년 8 월 24 일 (사)과학기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창립기념식 준비회의를 하다.
2021 년 9 월 7 일 (사)과학기움 임원회의를 열고 임명장 준비 확인, 소개책자 인쇄(안), 제 위원회 위원 요청 등 전체 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다.

2021 년 9 월 10 일 (사)과학기움 전체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이사장, 회장께서 수여하다. (구체적인 임명장 내용별도)

2021 년 9 월 28 일 11:00 시에 필동 본부 사무실 건물에 현판식을 걸고 개원식을 하다. 당시 참석인원은 50 여명이 참석하다.

2022 년 3 월 25 일 오후 2:00~5:00 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이사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사)과학기움 모임을 결성하다. 2023 년 3 월 25 일 오후 2:00~5:00 시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무궁화 홀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재확인하여 (사)과학기움을 추진 재결성하다.

(사)과학기술움 초대회장 **박호균**(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천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회장직을 2023. 6 월 20 일자로 사임하다.

(사)과학기술움 2 대회장으로 **성용길**(동국대학교 학장, 명예교수)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추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6. 29)에서 사단법인 과학기술 회장으로 등재되고 서울법원행정처에 등록(2023. 7. 20)완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된 (사)과학기술움을 서울법원행정처에 등록신청(2023. 7. 20)하여 2023 년 7 월 27 일에 등록 완료하다.

(사)과학기술움이 승인 등록된 다음 날, 조완규 이사장께 성용길 회장이 이-메일과 전화로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박정현 사무국장이 하고, 제반 서류(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허가증, 서울 법원행정처 승인등록증)를 행정적으로 보관 처리하다.

(사)과학기술움의 법인통장, 은행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을 각각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하다.

개설 통장번호: 우리은행 1005-804-544352 (사단법인 과학기술움)

2023 년 8 월 10 일(목) 10:00 시 제 1 회 (사)과학기술움 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160 (2 층), (사)과학기술움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법인체제 구축 회의를 주재(회장 성용길)하여 진행하다.

2023 년 10 월 20 일(금) 11:00~14:00 시 양재동 아이넷 TV 본사 빌딩 회의실에서 전체 회장단-임원 가을 **임시총회**를 개최하다. 이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박주철 사무총장, 박정현 사무국장, 김현숙 총무이사 등 모두가 합심하여 진행 및 추진하다.

(사)과학키움의 로고



ISP 사단
법인 과학키움
Initiative for Science Promotion

ISP.kr 사단
법인 과학키움
Initiative for Science Promotion

(사)과학키움 본부 사무실:

주소: 우) 031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60, 2층(원남동)

전화: 02-563-8088 FAX: 02-766-8088

E-mail: <office@ispkr.kr>

홈페이지: www.ispkr.kr, www.과학키움.kr

은행통장: 우리은행 1005-804-544352 (사단법인 과학키움)

회원신청 카드(별첨)-홈페이지(등재)

(사)과학키움 본부 사무실(약도)

